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 목사

김원재

## 주일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1월의기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같이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79)

다같이

나의 소망되신 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나 주의 도움 받고자(찬 214장 4절)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26:1-18

다같이

특별찬양

능하신 주의 손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나의 선택”

김원재

찬양과결단\*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찬 524)

다같이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월의 공동기도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회모임**이 있습니다.
4.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5. **현장새벽기도회**는 토요일에만 있습니다. 영상새벽기도회는 Zoom으로 “월~토”에 계속 있습니다.
6.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7. 당분간 예배당 사용에 조심을 기하라는 미국 교회의 요청이 있어서 주일예배 이후에 일체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 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2022년은 오미크론의 공습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감염자의 폭증으로 인해 다시 재작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20년 봄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영향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을 넘어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첫예배와 신년주일예배에 현장보다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영상, 음향의 진보가 이전에도 예배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요즘처럼 예배에 좋은 영향을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 메타버스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가상 공간에서 쇼핑을 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 되면, 지금은 첨단이라고 생각되는 생활의 첨단화가 보편화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기 보다 가상 공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떤 기업들은 회사 업무도 가정에서 다 하는 재택근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진보와 코로나의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예배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상예배는 현장예배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 병상에 있는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현장예배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드리는 영상예배는 보조 수단이나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뀔 수가 없듯이 예배의 공동체성, 현장성, 동시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우리의 편리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기때 그러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자꾸 편리한 예배에 익숙해져 갑니다. 이미 현대에 접어들며 우리는 편의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예배 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를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까짓 바이러스 이제 우리는 적응하고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